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 평가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① 2.① 3.④ 4.③ 5.④ 6.② 7.⑤ 8.③ 9.② 10.②
11.② 12.① 13.④ 14.② 15.③ 16.⑤ 17.③ 18.④ 19.② 20.⑤
21.⑤ 22.② 23.① 24.② 25.③ 26.② 27.⑤ 28.① 29.④ 30.①
31.③ 32.⑤ 33.④ 34.③ 35.④ 36.④ 37.③ 38.② 39.④ 40.②
41.③ 42.⑤ 43.① 44.③ 45.⑤ 46.③ 47.① 48.⑤ 49.② 50.①
51.④ 52.② 53.④ 54.⑤ 55.① 56.① 57.④ 58.③ 59.② 60.⑤

[1-6] 듣기

1.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자연 현상이나 동물의 행동을 통해 삶의 교훈을 얻곤 합니다. 오늘은 ‘기러기의 집단 이동 현상’을 통해 우리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러기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이때 기러기들은 V자 형태를 그리며 이동하죠. 왜 그럴까요? V자 대형을 이뤄 날아갈 경우, 대열의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저을 때마다 기류가 발생하는데, 그 기류가 뒤따라오는 기러기의 비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뒤쪽의 기러기들은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어 선두 기러기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선두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다른 기러기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한편 이동 중에 병에 걸리거나 사냥꾼의 총에 부상을 입어 대열에서 낙오되는 기러기가 생기면, 그 기러기가 회복되어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몇몇 기러기들이 함께 남아 보살펴 준다고 합니다.

1. 추론적 사고(교훈적인 삶의 태도 추리)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기러기의 집단 이동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기러기는 V자 대형을 이뤄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뒤에 있는 기러기의 비행을 돕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울음소리를 내어 선두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협력하는 자세와 서로를 격려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또 선두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지치면 다른 기러기가 그 역할을 대신 한다고 한 데서 동료로 아끼는 태도를 배울 수 있으며, 대열에서 낙오한 기러기가 생기면 몇몇 기러기들이 함께 남아 보살펴 준다고 한 데서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기러기의 집단 이동 현상’ 중에서 겸손한 태도를 배울 수 있는 현상이나 행동은 찾아볼 수 없다. [답] ①

2. 이번에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이번에도 광고 포스터 대회에 입상했다며? 참 좋겠다.
여: 고마워. 운이 좋았지 뭐.
남: 혹시 무슨 비결이라도 있지? 난 공모 결과가 항상 좋지 않거든.
여: 글썬,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가령, 사물을 그냥 제시하거나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표현하려는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하는 거지.
남: 그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봐.
여: 이것 좀 볼래? 다음 공모전에서 쓰려고 표현해 본 자료들이야.
남: 어디 좀 보자. (휴지) 아, 다양한데.
여: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게 없니?
남: 글썬. 음.
여: 그래? 그럼 이것 좀 볼래? 이건 물을 절약하자는 의도에서 표현한 자료야.
남: 음, 그러고 보니, 이 부분이 매우 독특한걸.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네!
여: 그래, 맞아. 수도꼭지를 있는 그대로 광고에 활용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그림처럼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대신 돈이 떨어지게 표현하는 건 새로운 생각이야. 바로 이렇게 대상의 일부를 대체할 경우에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거든.
남: 아, 그렇구나. 이제 확실히 알겠다.
여: 그럼, 한번 맞춰 봐. 여기 있는 다른 그림들 중, 방금 설명했던 방법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골라 볼래?

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이 대화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이 설명한 방법에 맞는 자료를 골라야 한다. 여학생이 설명한 광고 포스터 제작 방법의 핵심은 변형에 있다. 즉 수도꼭지에서 물이 아니라 돈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물을 절약하자는 의도를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의 일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답지에 제시된 것 중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대신 하트 모양을 그림으로써 ‘함께 하는 삶’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 여학생이 설명한 방법과 가장 유사하므로, 남학생이 선택해야 할 자료는 ①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우유팩을 두루마리 휴지로 바꿈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의도를 표현한 경우인데, 이는 대상의 일부를 변형한 것이 아니라 대상 전체를 새롭게 재창조한 것이므로 여학생이 설명한 방법과는 다르다. ③ 나무 한 그루를 여러 그루로 바꿈으로써 숲을 가꾸자는 의도를 표현한 경우인데, 이는 대상의 일부를 변형한 것이 아니라 대상의 수효를 늘린 것이므로 여학생이 설명한 방법과는 다르다.

④ 자가용 승용차를 지하철표로 바꿈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의도를 표현한 경우인데, 이는 대상의 일부를 변형한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를 아예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이므로 여학생이 설명한 방법과는 다르다. ⑤ 사람을 뜻하는 한자[인(人)]와 책이라는 두 대상을 책을 펼쳐 세워서 만든 ‘사람 인’자 모양의 한 가지 대상으로 바꿈으로써 독서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표현한 경우인데, 이는 대상의 일부를 변형한 것이 아니라 두 대상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므로 여학생이 설명한 방법과는 다르다.

3.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조선 시대 사람들은 상거래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저희 모둠에서는 조선 시대에 활동했던 보부상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보부상은 전국의 장을 돌아다니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던 상인으로, 보상과 부상을 함께 부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상은 봇짐장수로 물품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는 방식으로 가지고 다녔는데 귀금속, 장신구, 화장품 등의 잡화를 팔았고, 부상은 등짐을 지고 다니는 장수로 옹기, 생선, 소금 등과 같은 생활용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보부상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국가의 일정한 보호를 받는 대신, 국가의 유사시에 동원되어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는 해주산성 전투에 무기를 운반, 보급하고 직접 전투에도 가담하여 왜군을 물리치는데 공헌한 일이 있습니다.

보부상들에게는 채장이라고 하는 신분증이 매년 발급되었는데, 이것이 없으면 장사는 물론 객줏집에서 자고 가는 것까지 금지되었습니다. 채장의 뒷면에는 보부상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계명이 적혀 있었답니다. 장사를 하면서 불손한 언어를 쓰거나 불친절하여 예의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는 물망언, 나그네로 돌아다니면서 민폐를 끼칠 것을 경계해 이를 금하던 물패행, 음란함을 금하던 물음란, 도둑질을 금하던 물도적과 같은 규율이 그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부상은 조직의 엄격한 통제를 따라야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예의와 규율을 지켜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 했던 보부상들의 정신을 오늘날 상인들도 배워야

3.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보부상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이다. 학생의 발표에 따르면 보부상은 전국의 장을 돌아다니며 장사했고, 보상과 부상이 취급하는 물품이나 운반 방법이 각각 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부상

은 ‘채장’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으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계명과 같이 보부상에게는 지켜야 할 계명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부상이 일부 상품을 독점했다는 내용은 학생의 발표 중에 찾아볼 수 없다. [답] ④

4. 이번에는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암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퍼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계는 15세기 이탈리아의 건축가인 레온 알베르티가 개발한 암호 장치로, 글자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한 최초의 기계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이것은 사이퍼 디스크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사이퍼 디스크는 두 개의 구리 원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리 원반의 가장자리에는 각각 대문자와 소문자 알파벳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정해진 회전 규칙에 따라 대문자로 된 원문 알파벳을 소문자로 된 알파벳으로 암호화합니다. 회전 규칙이 정해지면 정해진 숫자만큼 안쪽 원반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예를 들면 ‘회전 규칙 1’은 시계 방향으로 한 칸, ‘회전 규칙 2’는 시계 방향으로 두 칸, 이런 식으로 안쪽 원반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문자 알파벳이 그것에 대응되는 소문자 알파벳으로 암호화됩니다.

그러면 한번 ‘회전 규칙 1’을 적용해서 원문 알파벳 ‘AC’를 암호화해 볼까요? (휴지) 그림처럼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일치시킵니다. 그 다음, ‘회전 규칙 1’에 따라 안쪽 원반을 시계 방향으로 한 칸 회전시켜 봅시다. (휴지 길게) 그러면 원문 알파벳 ‘AC’가 소문자 알파벳 ‘hb’로 암호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죠. 다시 그림과 같이 대문자 ‘A’를 소문자 ‘a’와 맞추세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회전 규칙 3’을 적용하여 원문 알파벳 ‘BD’를 암호화하면 무엇이 될까요?

4. 추론적 사고(시각 자료 활용)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암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퍼 디스크’라는 기계에 대한 강의 내용이다. 그림을 보면서 대본 내용을 꼼꼼히 들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듣기와 보기를 통합한 신유형 문제라 할 수 있다. 두 개의 구리 원반으로 이루어진 ‘사이퍼 디스크’의 가장자리에는 대문자와 소문자 알파벳이 새겨져 있다고 했고, 정해진 회전 규칙에 따라 대문자로 된 원문 알파벳을 소문자로 된 알파벳으로 암호화한다고 했다.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은 ‘회전 규칙3’을 적용할 때 원문 알파벳 ‘BD’가 어떻게 암호화되는냐는 것이다. 선생님의 설명 중에 ‘회전 규칙1’

은 시계 방향으로 한 칸, ‘회전 규칙2’는 시계 방향으로 두 칸, 이런 식으로 안쪽 원반을 돌린다고 했으므로, 이 규칙을 적용하면 ‘회전 규칙3’은 안쪽 원반을 시계 방향으로 세 칸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일치된 현재의 그림에서 ‘회전 규칙3’을 적용하여 안쪽 원반을 시계 방향으로 세 칸 돌리면 ‘B’는 ‘g’로, ‘D’는 ‘a’로 암호화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회전 규칙3’을 적용하여 ‘AE’를 암호화한 것이다. ② ‘회전 규칙3’을 적용하여 ‘AF’를 암호화한 것이다. ④ ‘회전 규칙3’을 적용하여 ‘BC’를 암호화한 것이다. ⑤ ‘회전 규칙3’을 적용하여 ‘CG’를 암호화한 것이다.

[5-6]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남): 지금까지 대한대학교 최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선호 현상을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크게 정리하면 유명 브랜드가 자아 표현의 수단이고, 유명 브랜드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민국대학교의 장 교수님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장 교수(여): 예, 물론입니다. 저로서는 최 교수님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명 브랜드 소비가 자신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자아 표현을 꼭 유명 브랜드로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유명 브랜드 선호를 비판하시는 이유는 뭐 더 없으신가요?

장 교수: 당연히 있죠. 최 교수님은 이 문제의 부정적 측면을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조차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선호합니다. 그에 따른 과소비도 큰 문제지만,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 역시 커다란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 교수(남):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저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회자: 잠깐만요, 최 교수님. 교수님 입장은 저희가 앞서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만큼 장 교수님께도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 장 교수님?

장 교수: 저는 최 교수님이 주장하신 경제적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최 교수님은 유명 브랜드 선호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는 수입품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된 자료를 좀 더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많이 키워야 한다는 최 교수님 말씀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소비자들이 광고의 이미지만을 좇아 외국 브랜드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소비 현실에서 과연 세계적 브랜드를 쉽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너무 기업의 시각으로만 보시려는 최 교수님의 선입견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선입견이요?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장 교수: 최 교수님은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 결국은 특정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교육의 측면에서 보자는 것이지요.

5. 추론적 사고(논리적 전제의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대본은 ‘유명 브랜드 선호 현상’에 대한 토론 내용이다. 첫 장면에서 사회자가 최 교수(남)의 말을 요약해 주고 나서 장 교수의 말을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명 브랜드 소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①과 ②가 최 교수가 이 장면 이전에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반부에서 장 교수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많이 키워야 한다는 최 교수님 말씀을 누가 부정하겠나’고 말한 것과, ‘최 교수님은 저와 같은 사람(=유명 브랜드 선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입장이 특정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다’고 말한 데서 ③, ⑤도 최 교수가 앞 장면에서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토론에서 소비자 교육의 측면을 강조한 사람은 최 교수가 아니라 장 교수이므로, ④는 최 교수가 이 장면 이전에 한 말로 보기 어렵다. [답] ④

6. 비판적 사고(사회자의 태도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최 교수의 말은 이미 충분히 들었으므로 장 교수에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며, 최 교수의 말을 끊고 장 교수의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토론에서 사회자가 중립적 입장을 취하여 공정한 토론이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회자가 유머를 사용한 대목을 찾을 수 없다. ③ 최 교수와 장 교수가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자가 주의를 환기할 만한 대목이 없다. ④ 사회자는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지 않았다. ⑤ 사회자가 토론자의 말실수를 지적한 대목을 찾을 수 없다.

7. 추론적 사고(자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보의 생성)

정답해설 : <보기>의 그림에서 ‘녹음’은 소리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효과적인 독서’에 연관시켜 새로운 내용을 연상한다면, 독서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이나 독자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기록하여 남기는 것으로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녹음’을 독서를 할 때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는 내용으로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은 ‘녹음’이 갖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진술이기 때문이다. [답] ⑤

8. 비판적 사고(개요의 작성과 수정)

정답해설 : 본론 II-2.는 ‘잘못된 신발 선택의 폐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통비 증가’는 잘못된 신발 선택 또는 이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신발 선택이 잘못되어 교통비가 증가한다는 진술은 논리적 연결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답] ④

9.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을 통한 새로운 정보의 생성)

정답해설 : 주어진 자료에는 한국인들의 76.9%가 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상을, 5.8%가 부정적인 연상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인은 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상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야기에 개가 부정적인 역할보다 긍정적인 역할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추론적 해석을 내리는 것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주어진 자료에는 고양이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빠르다, 예민하다’와 같은 긍정적 연상을, ‘차갑다, 교활하다, 믿을 수 없다’와 같은 부정적 연상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고양이에 대해서 ‘부드럽다, 친근하다, 깨끗하다’와 같은 긍정적 연상과 ‘제멋대로다, 게으르다, 변하기 쉽다’와 같은 부정적 연상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고양이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표적 연상의 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양이의 이미지는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에서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적 해석을 내리는 것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10. 추론적 사고(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의 생성과 그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계획을 통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글을 쓰는 의도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실천 가능한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린이 전문 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구체화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방안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볼 수 있을 뿐, 교통안전을 위한 예방책으로 보기 어렵다. [답] ②

11. 비판적 사고(퇴고하기)

정답해설 : ‘완만하다’라는 말은 ‘성격이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너그럽다’는 의미를 가진 어휘이다. 따라서 지붕이 경사진 정도를 의미하는 어휘로 사용할 수 없다. 경사가 급하지 않다는 의미를 가진 어휘는 ‘완만하다’이다. 따라서 ㉠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대응전에 도착하기 이전의 풍경인 절 입구의 연못과 돌다리에 관한 진술은 대응전 진술의 앞에 위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④ 시간이 되었다는 진술은 모호한 표현이다. 그 ‘시간’이 어떤 사건과 관련한 시간인지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기>에서는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절을 떠나야 할 시간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창의적 사고(조건에 적합한 표현의 생성)

정답해설 : [A]에 들어갈 내용은 학생이 쓴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석탑이 나를 반긴다.’의 진술과 연결되기에 자연스러운 내용을 담아야 하고,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의인법, 직유법 그리고 대상 즉, ‘석탑’에 대한 공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것은 ①이다. ‘다정한 친구처럼 내게 말을 건넨다.’는 표현에 직유법과 의인법이 드러나 있으며, 대상인 석탑과 자신이 서로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듯한 ‘대상과 주체의 공감’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직유법이 없고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진술도 없다. ③ 직유법이 없다. ④ 의인법이 없고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진술도 없다. ⑤ 직유법이 없고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진술도 없다.

13. 추론적 사고(어휘의 의미 변별을 통한 해석)

정답해설 : ㄷ의 분석 자료를 통해 서울과 인천이라는 장소 중간에 생긴 넓은 공간에는 ‘틈, 겨를’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ㄹ의 분석 자료를 통해서 ‘겨를, 사이’는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ㄷ과 ㄹ을 통해서 [시간]의 의미가 세분화되어 ‘사이’와 ‘틈’의 사용에 대한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ㄹ은 [시간]과 관련하여 ‘틈’과 ‘겨를’이라는 어휘의 의미가 세분화되는 것과 관련이 되지만, ㄷ은 시간이 아닌 공간의 의미를 분화와 관련이 되는 진술이기 때문이다. [답] ④

14. 추론적 사고(어법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세 개이다. 필수적 문장 성분이란 누락되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없게 되는 성분이다. 따라서 ㄴ에서 필수적 문장 성분을 찾으면 주어인 ‘학생들이’와 목적어인 ‘점심을’ 그리고 서술어인 ‘먹는다’이다. 그러나 ‘식당에서’라는 부사어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니다. 이 성분은 문장의 의미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 문장의 문법적 성립 여부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답] ②

[15~19] 현대소설, 이태준, ‘복덕방’

작품해제 : 이 소설은 소외된 세 노인의 삶을 통해 당대의 궁핍한 사회상을 드러냄은 물론, 물질주의와 출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기적인 딸과 소심한 아버지를 통해 무너져 가는 가족 관계도 보여주고 있으며, 1930년대에도 만연되어 있었던 부동산 투기의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세 노인이 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소

일을 한다. 이들에게는 뚜렷한 미래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작가는 이들의 꿈과 좌절을 객관적 태도로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한말에 훈련원의 참위로 봉직했던 무관 출신 서 참위는 복덕방 주인으로서 그런 대로 현실에 만족하지만, 수차에 걸친 사업 실패로 몰락하여 지금은 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간혹 먹고 자기도 하며 신세를 지고 있는 안 초시는 현실에 불만족한 채 재기의 꿈을 안고 살아간다. 무용가로 유명한 딸 안경화가 있으나 안 초시는 늘 그녀의 짐으로 대우받을 뿐이다. 재기를 꿈꾸던 안 초시에게 박희완 영감이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고, 안 초시는 딸의 돈 삼천 원으로 그 부동산을 사들이지만, 박희완 영감이 제공한 정보가 박희완 영감 자신도 속아 넘어간 거짓 정보임이 밝혀지면서 딸의 재산을 몽땅 잃게 된다. 결국 안 초시는 음독 자살함으로써 허황된 꿈을 가진 인물의 서글픈 귀결을 보여 준다. 한편 딸 안경화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다. 안 초시의 영결식에 참석한 서 참위와 박희완 영감은 친구의 죽음과 인간미 상실의 체험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기만 하다. 서 참위와 박희완 영감은 안 초시의 딸 경화와 조문객들이 내보이는 가식적 울음과 인간적 허세가 역겨워서 묘지에 따라가지 않는다.

[주제] 일제강점기 소외된 노인들의 애처로운 삶에 대한 연민

15.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안 초시, 서 참위, 박희완 영감의 성격이 각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간접 제시되는 동시에 서술자에 의해서 직접 제시되고 있으며, 주로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으므로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ㄴ. 이 글은 짧고 감각적인 문장보다는 만연체의 긴 문장이 더 많이 쓰였다. ㄷ. 여기 제시된 장면에서는 갈등의 심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16.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㉞를 통해 안 초시의 ‘딸’이 부자임을 알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안 초시의 희생 덕분이라고 이해한 것은 이 글과 <보기>의 어디에서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없다. 제시된 지문 내용에 따르면 안 초시는 자기의 야심 때문에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실패한 것이 딸을 위해 희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드팀전이 신식 상점의 등장으로 점차 퇴조했다는 <보기> ㉜의 설명과 안 초시가 엄지손가락을 탓하는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② ‘참위’의 직위에 관한 <보기> ㉝의 설명과 서 참위의 인물됨에 대해 언급한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③ 일제 때 쓰던 연호의 의미를 설명한 <보기> ㉞와 서 참위가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게 된 내력을 언급한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④ 일제 때는 ‘국어’가 ‘일본어’를 뜻했다는 <보기> ㉟의 설명과 박희완 영감의 인물됨에 대해 언급한 이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17. 추론적 사고(인물의 관점 및 태도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안 초시’는 비록 현재는 몰락한 처지이지만 언젠가 한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과 야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값이 폭등하는 <보기>의 현상을 보고 금광을 통해 자신의 희망과 야심을 구체화하려는 식의 반응을 보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금광 열 개보다 자기 손 안의 백통화 한 푼이 낫다는 반응은 이 글에 제시된 안 초시의 인물됨과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② 안 초시가 복덕방으로 돈을 번 서 참위의 생활을 부러워하지 않았다고 한 데서 그가 복덕방으로 번 돈 정도는 하찮게 여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안 초시가 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떴었다는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⑤ 안 초시가 부자인 딸의 예산 중에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없는 모양이라고 하며 아쉬워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짐작할 수 있다.

18.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 추리)

정답해설 : 「속수국어독본」은 일본어인데 그것을 ㉠의 투로 읽는다고 하였다. ㉠은 ‘「삼국지」를 읽던 억양으로’ 일본어를 읽는다는 뜻이므로, 결국 박희완 영감이 일본어로 된 책을 삼국지 읽듯이 읽기 때문에 그 발음이 일본어 억양과 맞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최후의 십 전이기 때문에 떨리는 것이다. 여기 제시된 지문에서는 아직 안 초시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없다. ② 못 생긴 엄지손가락에 대한 자탄이 아니라 자신의 운수가 나쁨을 탓하는 것이다. ③ 서 참위는 가난하지 않으므로 서 참위가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관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책이 손때, 머리카락에 절어서 글자가 안 보이는 것이므로 인쇄 상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9. 어휘·어법(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세상은 먹구 살게는 마련이야’라는 것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결국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는 ‘살기가 어렵다고 쉽사리 죽기야 하겠느냐는 말’을 뜻하는 ‘산 입에 거미줄 치랴’가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살기 위하여 하지 못할 일까지 하게 된다는 말. ③ 몹시 고생하는 사람도 운이 트일 날이 있다는 말. ④ 우연히 한 일이 뜻하지 않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 ⑤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는 말.

[20-23] 언어 ‘주시경의 업적과 평가’

지문해설 : 이 글은 주시경이 남긴 업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자인데, 특히 오늘날 형태소에 해당하는 개념 ‘닛씨’를 인식했다는 사실과,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주시경은 국어학자만이 아니라 국어 교육자로서도 큰 공헌을 남겼는데, 그의 성과는 오늘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주제] 주시경의 연구 업적과 그에 대한 평가

20. 사실적 사고(글쓴이의 서술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주시경의 업적이다. 그런데 글쓴이는 국어학자로서, 국어 교육자로서 주시경의 업적을 다루면서 그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적인 인물, 놀라운 통찰력, 의의가 크다, 큰 공헌을 하였다,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 등의 표현에서 글쓴이는 주시경의 업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부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⑤

2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지문에서 단어의 의미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의미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다룬다면 특정한 어휘의 의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5행에서 알 수 있다. ②, ③ 3문단에서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설명한 ‘닛씨’라는 개념은 오늘날 ‘형태소’와 유사한 개념이며 이는 단어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

22.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국어학에서 주시경은 고유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분석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였다고 했다. 그가 도입한 ‘닛씨’라는 개념은 서양의 블룸필드보다 훨씬 이전이라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국어 연구에 매진한 이유는 서구 언어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언어를 민족 정체성의 징표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연구로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어 교육에도 앞장섰던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주시경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국어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다고 했다. ③ 주시경은 국어학자로서만이 아니라, 국어 교육자로서도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언어를 민족 정체성의 징표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4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④ 2문단에 제시되었듯이 그의 연구 업적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모호하거나 엄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과학적 연구 방법이 전무했던 시대에 나온 것이다. ⑤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웠으며 이를 국어 교육을 통해 실천하였다. 그리고 그

의 업적들은 ‘한글 맞춤법’에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기에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적 인물이라 한 것이다.

2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제시)

정답해설 :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형태주의적 입장이란, 소리보다는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되어도 앞 낱말의 받침이 연음되지 않고 ①에 제시된 ‘집이’, ‘집을’처럼 그냥 결합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용언이 불규칙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간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기에 형태주의의 사례로 볼 수 없다. ③ 형태주의가 적용된다면 ‘소나무’는 ‘솔나무’가 되어야 하며, ‘바느질’은 ‘바늘질’이 되어야 한다. ④ ‘짚막하다’는 ‘짚다’의 어간 ‘짚’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널따랗다’ 역시 ‘넓다’의 어간 ‘넓’이 변하였다. ⑤ ‘마개’는 ‘막다’의 어간 ‘막’이 변하였고, ‘마감’ 역시 ‘막’에 ‘암’이 결합되면서 어간이 변하였다. 즉 형태가 유지되지 않았다.

[24-27] 과학,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위치 및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위치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판구조론의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른 아이슬란드의 특수한 지질학적 위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독특한 지질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특수함을 이해해가는 과정은 지구의 판 운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이끌어준다. 판의 속도와 열점 등의 개념 또한 쉽게 설명되어 있어 지구 구조의 전반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주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특성의 이해

24. 추론적 사고(대상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위치는 일반적인 판 구조론에 비해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즉 한 나라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판 위에 놓여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지구의 판 이론을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아이슬란드 자체가 그 연구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아이슬란드는 그 지질학적 위치와 더불어 판의 절대 속도를 잴 수 있는 기준점인 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과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특성들이 과학자들이 관심을 두는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과 ㄷ이 아이슬란드에 과학자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답] ②

25.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독해라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사고를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슬란드의 특수한 지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하였다고 해도 ③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두 개의 판이 만나고 있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을 뿐, 어느 판이 더 빠른 이동 속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나 그와 관련된 정보는 없기 때문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아이슬란드는 화산섬이라는 지질학적 특성이 있어 화산의 열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되어 있음이 1문단에 드러나 있다. ②아이슬란드가 위치한 두 개의 판이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위치한 아이슬란드의 크기도 점점 확장된다. ④아이슬란드가 위치해 있는 두 개의 판이 점점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지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⑤아이슬란드는 대서양의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다. 즉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분이 해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의 해저 산맥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26.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및 심화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심화 학습은 지문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추가로 연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는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좀 더 깊은 사고가 가능해질 수 있는 문제제기들을 의미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선택지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제가 지문에 다루어진 내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②는 본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심화학습의 주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답] ②

27. 어휘 · 어법(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기본형이 ‘구하다’인 단어로, ‘알아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하다’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한 것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쓰임은 ‘문제의 답을 알아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⑤가 가장 유사한 쓰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은 ‘필요한 것을 찾거나 또는 그렇게 하여 얻다’는 의미이고, ④는 ‘상대편이 어떻게 하여 주기를 청하다’는 의미이다.

[28-34] 시가복합

(가) 서정주, ‘추천사’

작품해설 : 이 시는 ‘춘향전’을 모티프로 하여 쓴 시로 ‘춘향의 말’이라는 부제를 지

니고 있다. 일종의 춘향의 유언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신분적 제약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상적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 초월적 세계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네’라는 사물을 통해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넛줄에 매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춘향의 운명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초월적 세계로의 갈망

(나) 김지하, ‘새’

작품해설 : 이 시에서 사물이 푹푹 썩어가는 더운 여름날 화자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창밖 푸른 하늘 흰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 새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육체의 피로움과 암울한 심리를 토로하고 있다. 구속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자유에 대한 열망

(다) 윤선도, ‘만흥’

작품해설 : 이 시는 연시조로 윤선도가 세상을 멀리 하고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시이다. 조선 전기의 강호가도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제목도 역시 ‘흥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흥겨운 삶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하게 현실에서 벗어나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도 임금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

28. 비판적 사고(작품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춘향이의 초월적 지향이 첫 연과 끝 연에 나타나 있고, (나)에서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에 비해 현실의 고통에 묶여 있는 화자의 상태를 첫 연과 끝 연에서 대응시키고 있다. 따라서 두 시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킴으로 해서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①, ② 둘 다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객관적 시각이 아니라 주관적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다)는 오히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⑤(가)는 호소적 어조가, (나)는 탄식적 어조가, (다)는 감탄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29. 추론적 사고(화자의 태도 추리)

정답해설 : [B]의 화자는 새처럼 자유롭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에서는 묶여 있는 고

통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에 좌절하기보다는 맞서야 한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A]의 화자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자각하고 이에 대해 좌절하고 있다. 따라서 [B]의 화자는 [A]의 화자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하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라고 말할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죽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② [A]의 화자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좌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이미 [A]의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꿈을 지니고 있다. ⑤ [B]의 화자가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30. 추론적 사고(시어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다)의 ‘띠집’은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세계를 뜻하면서도 동시에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 것이라고 하면서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벗어난 것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찾으면 ‘그넛줄’이 된다. ‘그넛줄’은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밀어 올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월적 지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넛줄에 매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수양버들, 풀꽃더미, 나비, 꾀꼬리’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현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⑥는 지상의 아름다운 사물, ③는 현실적 장애물, ④는 초월적 이상의 세계, ⑤는 현실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31. 추론적 사고(표현 기교 파악)

정답해설 : ㉞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생각으로는 내 분수에 맞는 일로 여겨지노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분수에 맞는 안분지족의 삶에 대한 겸손한 표현이므로, 자조적인 태도를 지닌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원래 ‘나는’으로 해야 어법에 맞는다. ② 밝은데 침침하다고 했으므로 모순된 표현으로 역설법에 해당된다. ④ 천자와 자신을 비교한 것은 과장법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의문이다.

32.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임을 꿈에서나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시에서도 역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나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의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 화자는 임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사랑의 상처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만 미천한 신분을 한탄하는 것은 아니다. ③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지만 단순하게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임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라 임과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답]

33. 창의적 사고(다른 갈래로 전환하기)

정답해설 : (나)의 4연은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부정적이고 암울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노래한 것이다. 즉 낮이 밝을수록 침침하고, 별빛은 여위어가고 새는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영상화할 때 화면을 점차 밝게 하는 것은 시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화면을 어둡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는 ‘새’와 ‘화자’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드러낸다. ② 암울한 상황을 드러낸다. ③ ‘사슬 소리여’라고 했으므로 효과음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⑤ ‘떠나가는 새’와 ‘눈부신 구름’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세계를 상징한다.

34. 비판적 사고(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다)에서 ‘그 남은 여남은 일’은 세속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의 일과 관련된 벼슬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연 속에 은거하고자 하는 작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은 자연 속에 있으면서 세속과는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남은 여남은 일’을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것으로 감상한 것은 정반대로 감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금쇄동의 공간을 뜻하므로 실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바위 끝 물가’는 그가 거처하면서 조성해 놓은 정원의 사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먼 뵈’가 임보다 반갑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자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자연은 현실처럼 다툼과 시비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35-38] 기술, ‘초기 사진술의 특성’

지문해설 : 다게르와 톨벗, 이 두 사람이 만든 사진술을 소개하는 글이다. 사진 영상을 얻는 기술적 과정과 얻게 된 사진 영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의 진술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인 콜로디온 기법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사진술이 퇴조하게 되었음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주제] 다게르와 톨벗이 만든 사진술의 특성

35.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글쓴이는 다게르와 톨벳이 만든 사진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술의 발명을 두 사람의 창의적 발상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게르는 니에프스와의 공동 연구 이후 사진술을 만들었으므로 창의적 발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톨벳의 경우는 글 속에 창의적 발상에 의해 사진술을 만들게 되었다는 진술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진술이 출현하게 된 상황을 진술하면서 다게르와 톨벳이 상을 얻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② 톨벳이 만든 사진술에 의해 나타난 영상의 약점과 다량 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 있다. ③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의 보급과 콜로디온 기법으로 인한 이 두 타입의 쇠퇴가 진술되어 있다. ⑤ 톨벳의 특허 출원이 기술 확산에 제동을 주었다는 진술이 드러나 있다.

36. 창의적 사고 (표를 활용한 정보의 창의적 구성)

정답해설 : (가)에서 다게레오타입에 나타난 사진 영상은 세부 묘사가 탁월하여 매우 정밀한 상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으나, (라)에서 칼로타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고 중간색이 거의 없어서 풍경이나 정물 사진에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진술되고 있다. 따라서 칼로타입의 영상에 나타난 특징으로 다양한 중간색을 지적한 ④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라)에 드러나 있다. ② (가)에 드러나 있다. ③ (나)와 (라)에 드러나 있다. ⑤ (다)에 드러나 있다.

37. 추론적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반응 이해)

정답해설 : (다)에서는 톨벳이 만들어낸 칼로타입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칼로타입은 음화-양화 기법으로서 한 번의 촬영으로 다량의 종이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칼로타입의 특허 출원으로 인해서 기술의 확산에 제동이 걸렸음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반응은 (다)의 내용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칼로타입을 다게레오타입보다 우수한 기술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며 더구나 경쟁에서 이겼다는 내용은 (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답] ③

38. 어휘 · 어법의 이해(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존 명사 ‘바람’은 ‘-는 바람에’의 구성으로 쓰여 이어지는 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은 ②이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친구들이 떠드는 것이 교실에서 공부를 못 하게 된 것의 이유와 원인이 되고 있다.

[39-43] 사회, ‘후(後) 채택 이론에 근거한 정보 격차 양상의 파악’

지문해설 : 이 글은 후(後) 채택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정보 격차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과거에는 매체 보급의 확대로 정보 격차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후 채택 이론’에 따르면 정보 격차는 다차원으로 존재하며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 격차의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현대 사회의 정보 격차가 이용의 자주성과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런 정보 격차의 양상이 앞으로는 인구 사회적 변인과 결합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복합적으로 드러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주제] 정보 격차 양상의 변화와 전망

39. 사실적 사고(단락의 요지 파악)

정답해설 : 각 단락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각 단락은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지니게 되는데, 이처럼 단락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라)는 앞단락에서 이야기한 ‘이용의 자주성’과 대응되는 또 하나의 양상인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단락이므로 이를 새로운 관점과 기존 관점의 절충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다)처럼 ‘새로운 관점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 단락에서는 매체 보급이 확대되면 정보 격차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기존의 관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② ‘정보 격차의 문제’가 매체의 보급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격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는 단락이 된다. ③ (나) 단락에서 이야기한 새로운 관점은 ‘이용의 자주성’과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관한 것인데, (다)는 그 중 ‘이용의 자주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마)는 앞으로 정보 격차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전망하고 있다.

40.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글 전체의 화제인 ‘정보 격차의 해소’를 해결하려면 실제 사회에서 어떤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는 문제이다. 즉 지문의 내용을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그런데 이 글은 정보의 격차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②는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정보 격차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정보 격차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답] ②

41.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밑줄 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이면서도 적절한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할 줄 알고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인터넷을 사용할 줄은 알지만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순간에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이 줄어든 것은 매체 이용의 자주성과 매체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매체에 중독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집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도 공공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디지털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접근의 격차는 어느 정도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컴퓨터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꺼리게 된다. ④ 디지털 시스템 사용 능력은 길렀지만 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⑤ 정보 격차는 정보 활용의 질적 차이를 낳아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됨을 의미이다.

42.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매체 보급이 확대되면 정보 격차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존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관점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 사람들 사이의 정보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이 있는 사례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두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게 되어 공연에 대한 정보 격차는 사라질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관련이 있는 사례는 ⑤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43. 어휘 · 어법(단어 의미의 확장 이해)

정답해설 : 먼저 제시된 <보기>를 통해 단어의 기본적 의미와 확장된 의미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후에 제시된 각 단어의 기본적 의미와 확장된 의미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이 확장된 의미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는지 아니면 쓰일 수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한다. ㄱ의 ‘풀다’의 반대말은 ‘묶다’이지만 확장된 의미인 ‘(감정을) 풀다’의 반대말은 ‘(감정을) 갖다’가 된다. 또 ㄴ의 ‘주다’의 반대말은 ‘받다’이지만, 그 확장된 의미인 ‘(겉을) 주다’의 반대말은 ‘(겉을) 먹다’가 된다.

[44-48] 고대소설, 작자 미상, ‘숙향전’

작품해제 : 이 작품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여성의 수난을 그리고 있다. 천상계에서 정한 예정에 따라 지상에서 애정이 이루어진다는 적장 소설적인 전개를 지니고 있다. 숙향이라는 인물이 시련을 겪으면서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요소도 있지만, 대부분 초월적인 구원자들에 의해 도움을 받

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요소를 띠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시련을 극복하고 성취하는 사랑

44. 추론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부분은 인물들 간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다. 앞 부분에서는 사향, 부인, 승상, 숙향이라는 인물들이 주고 받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숙향의 행동과 용녀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숙향의 적개심이 달리 표출되고 있지 않다. ② 서술자가 아니라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④ 특별한 배경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산문투로 진술되어 있다.

45.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사향은 혼자서 일을 꾸며서 숙향을 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내용으로는 먼저 숙향에게 도둑질의 누명을 씌우고, 뒤에 숙향이 외인과 상통하는 것처럼 부정한 행실의 누명을 씌운다. 승상은 숙향을 추방할 것을 지시하고, 숙향은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답] ⑤

46.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적용)

정답해설 :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을 읽는 사람들이 겪었음직한 현실적인 경험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숙향이 여러 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독자의 동질감과 함께 비감(悲感)을 증대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적강은 비현실적인 경험이다. ② 용녀는 예정되어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④ 천상계와 지상계를 나누고 있는 것은 이중적 세계관을 드러낸 것이지 운명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⑤ 안정된 현실이라기보다는 이루고 싶은 소망을 뜻한다.

47. 어휘 어법(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해설 : ㉠에 나타나 있는 숙향의 처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기호지세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③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④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

48.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해설 : 전기수가 사람들에게 국문소설을 읽어 주다가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하는 장면에서 읽기는 멈추는 것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게 하기 위한 수법이다. 따라서 앞으로 흥미진진한 장면이 펼쳐질 부분에서 멈추게 함으로써 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에서는 속향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난 이후의 위기적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읽기를 멈춘다면 독자들은 궁금증이 생겨 빨리 읽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답] ⑤

[49-52] 예술 ‘예술의 개념’

지문해설 : 이 글은 예술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해 답을 찾아가고 있다. 즉,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술의 본질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만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의 해결을 구체적인 사례와 유추적 설명, 권위자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접근해가고 있다. 결국 예술이라는 개념은 열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럴 때 예술의 창조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주제] 본질의 성찰을 통한 새로운 예술의 개념

49. 사실적 사고(서술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예술의 개념이라는 추상적 화제를 다루다 보니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서술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상반되는 관점들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게임의 사례를 들어 예술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3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통해 ‘유사성’의 개념으로 글을 이어가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와이츠의 의견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유사성에 의해 성립되는 개념을 가족과 밧줄의 유추를 통해 설명하였고, 여기에서 예술의 열린 개념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1문단과 2문단에서 예술의 본질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다.

50.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와이츠가 말하는 예술의 ‘열린 개념’은 예술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것이 무한한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에 적합한 개념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된다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분명히 그들 안에는 어떤 연관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폭이 넓게 적용될 따름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서 밧줄 속의 실들이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공

통적인 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공통적인 속성이 없기에 예술의 본질은 없고, 다만 가족 유사성에 근거한 열린 개념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③ 와이즈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표현이나 형식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51. 논리적 사고(개념 간의 범주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예술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동원한 것이다. 즉, 어떤 대상의 개념을 규정할 때, 과연 본질적 속성이란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가]에서는 게임(A)을 ‘경쟁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가진 것(B)’으로 가정한 후 이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반례에서 ‘경쟁’을 속성으로 가졌으면서도 게임이 아닌 전쟁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게임 중에서 경쟁을 속성으로 가지지 않는 혼자 하는 카드놀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A와 B 사이에는 ‘경쟁’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경쟁이 없는 게임과, 게임이 아니면서도 경쟁의 속성을 가진 것이 있기에 둘은 교집합만이 있는 상태의 ④로 표현되어야 적절하다. [정답] ④

52. 어휘 · 어법(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에서 ‘밧줄’과 ‘짧은 실’은 예술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구체적인 사물이다. ‘밧줄’은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짧은 실’은 그 개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다. ㉡는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며, ‘이에 속한 모두에게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야기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머지는 모두 개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거나,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것들이다. 즉, 나머지는 ‘개념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답] ㉡

[53-56] 극문학, 유치진, ‘토막’

작품해제 : 1920년대 우리 농촌의 궁핍상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명서네 집안이 겪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일제 강점기 하의 궁핍한 민족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 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품으로, 한국 현대 희곡의 대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막’이라는 어두운 공간을 중심으로 삶의 기반을 상실한 채 파멸해 가는 한 가정의 비극을 통해 일제의 악랄한 식민 통치를 비판하고 있다. 1920년대 궁핍한 한국 농촌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어 사실주의적 희곡의 전형으로 꼽힌다.

[주제] 일제 강점하의 민족의 비극적 현실 고발과 극복 의지

53.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전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활용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명서네를 찾아

온 삼조가 “명수에게 부칠 게 있다고요?”라고 말한 내용으로 미루어 ‘삼조’는 ‘명서’의 집에 오기 전에 ‘명수’에게 전할 것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답] ④

54. 추론적 사고(연극 상황으로 적용하기)

정답해설 : 삼조는 바쁘다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삼조에 대해 명서의 처는 잠시 마루에 걸터앉을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적인 선후 관계로 미루어 이 경우는 삼조가 바쁘다고 말하면서 초조하게 마당을 서성거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편지를 제때 쓰지 못하는 명서를 비난하며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 ② 명서는 지금 편지 내용을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어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시선을 위로 향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명서의 처는 삼조의 차림새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만큼 삼조를 바라보는 것이 어울린다. ④ 아직 편지를 다 쓰지 않은 상태이므로 삼조의 말에 대해 껌연쩍은 표정을 짓는 것이 어울린다.

55. 비판적 사고(내적 준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금녀와 명서의 처는 편지를 전달해줄 ‘삼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만큼 ‘명서의 처’는 개가 짓는 다는 금녀의 말을 듣고 경계심을 드러낸다기보다는 반가움을 드러낸다고 보아야 옳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개가 짓는 만큼 이를 나타낼 효과음이 필요하다. ③ 금녀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④ 이후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 이끌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⑤ 개가 짓는 것은 삼조의 등장 시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56. 추론적 사고(근거의 추리)

정답해설 : <보기> 내용과 연관하여 일관되게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삼조’가 양복을 입고 있는 것과 <보기>에 드러난 금녀의 심리 곤, 오빠 소식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은 서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에 드러난 ‘삼조 씨가 가면’이라고 생각한 곳은 일본에 해당된다. ③ 삼조와 명수가 아는 사이이기에 소식을 전하고 알릴 수 있을 것이다. ④ 명수는 일본에 있어 소식을 모르기에 금녀는 궁금해 하고 불안해 한다.

[57-60] 인문, ‘임진왜란 때 의병의 봉기 원인’

지문해설 : 이 글은 임진 왜란 때 의병의 봉기 원인을 분석한 글이다. 글쓴이는 기존 연구자들이 의병의 봉기 원인을 유교 이념에서 비롯된 ‘임금에 대한 충성’의 측면에서 찾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의병들은 유교적 충의 이념에 따른 봉기에

앞서 혈연과 지연으로 묶인 지역으로서의 고을을 지키기 위해 봉기하였다는 것이다. 곧, 의병의 입장에서는 가족과 마을의 수호를 의병장의 입장에서는 지역적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실적 이해 관계가 의병 봉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주제] 의병의 봉기 원인으로 파악될 수 있는 지역성

5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각 문단의 문단 화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변별해 낸다. 주어진 글에는 의병의 전투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그 실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전반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 ② 2문단과 5문단에 드러난다. ③ 5문단에 드러난다. ⑤ 4문단에 드러난다.

58. 추론적 사고(근거의 파악과 적용)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보기>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근거화하기에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된다. ㄱ은 백성들의 조정 대신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 민심을 언급하고 있어 ㉞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 ㄴ은 흐름으로 보아 조정에서 의병장에게 내리는 편지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할 것이다. [답] ③

59.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 추리)

정답해설 : [A]는 의병의 입장에서 가족과 마을의 수호를 위한 노력이 의병 봉기의 직접적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②는 충의적 이념에 따른 임명에 충성하기 위한 의병 가담인 만큼 이는 [A]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병에 참여하는 만큼 당연하다. ③ 혈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해당된다. ④⑤ 혈연과 지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60. 어휘 어법(접미사의 파악)

정답해설 : -꾸러기는 -투성이처럼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활용된다. 『장난꾸러기/욕심꾸러기/잠꾸러기/말썽꾸러기/걱정꾸러기』와 같은 용례로 쓰인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일부 명사 뒤에 붙어』 ㉠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나무꾼/노름꾼/도굴꾼/사기꾼/사냥꾼/주정꾼. ㉡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구경꾼/일꾼/장꾼. ②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서울내기/시골내기. ㉢ 『일부 어간이나 접두사 뒤에 붙어』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흔히 그런

사람을 낚잡아 이를 때 쓴다. ¶신출내기/여간내기/풋내기. ③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간판장이/땀장이/미장이/양복장이/용기장이/칠장이. ④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벼슬아치/동냥아치.